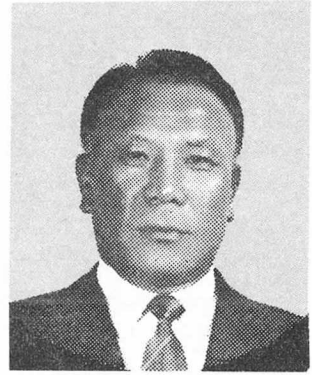


신임 농림수산부장관 취임사

취임사

유통구조 개선으로 가격안정 이룩할 터



김 주 호
(농림수산부장관)

친애하는 농림수산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농림수산 단체 임직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유관기관의 책임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통령 각하의 강력한 영도아래 국운의 융성기를 맞아 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부이양과 88올림픽을 완벽하게 준비하여야만 하는 매우 뜻깊고도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와같이 중요한 시기에 본인이 농림수산 행정의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어 책임의 막중함을 한없이 느끼면서 여러분과 함께 1천만 농어민에 봉사하게 된 것을 평생의 보람과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농림수산업과 농어촌은 역대장관님들의 탁월하신 지도력과 농림수산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6년 연속 풍년을 이룩하였으며 농어촌 개발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농어촌 종합대책과 농어가 부채경감대책 등 농정사에 크게 기록될 만한 훌륭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오신 전임 황인성 장관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서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대하여도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농림수산 공직자 여러분!

제5공화국 출범이후 정부는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촌은 아직도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영농으로의 전환에 대비해 농업소득원을 확충하는 한편, 생산기반
구축과 농어촌 공업화 시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같은 농어민과 농어촌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기회있을 때마다 농어촌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이와같은 대통령 각하의 말씀과 경륜을 받들어 우리는 소득이나 생활여건 면에서 도시에 못지않는 복지농어촌을 앞당겨 건설하는데 다함께 노력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금년에도 7년 연속 풍년농사를 기필코 달성하여 풍요로운 국민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적정생산과 시장정보체제 등의 확립으로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나감으로써 농림수산물의 가격안정을 기하고, 농어민의 시장대응능력을 제고하여 생산이 소득으로 직결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영농으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농업소득원도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생산기반 구축과 동시에 농어촌 공업화 시책도 추진해 나가며 농어촌복지와 관련된 사회간접시설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현재 추진중인 농어촌 종합대책과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 등 각종 현안시책을 일관성있게 마무리지어 나감과 아울러 새로운 보완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발전하여 더 좋은 시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본인은 농림수산부에서 여러분과 같이 오랜 기간을 일해왔으며, 비록 지난 7년 동안 농림수산부를 떠나 다른 기관에서 일해왔습니다만, 항상 본인의 성장에 바탕이 되어온 농림수산 분야를 한번도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앞으로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농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하여 같이 의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5공화국의 국정이념인 복지 농어촌의 조기건설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우리 앞에는 7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농어민과 더불어 함께 땀흘려 일함으로써 오는 가을에도 들녘마다 풍년이 들도록 분발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인은 항상 농어민과 함께 호흡하고 걱정하며 또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가다듬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취임인사에 가름하는 바입니다.

1987년 5월 19일

농림수산부장관 김 주 호